



08-42 (통권 220호)  
2008.10.24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국제 원유 가격 하락세 지속
- 국내 총액대출한도 상향 조정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가시화

## 경영 노트

- 위기를 극복하는 브레인 확보 전략

## 사회 트렌드

- 데스크테리어族
- 루미族

## 차이나 리포트

- 최근 중국 경제와 경기 부양책

## 저널 브리프

- ‘짠돌이’ 경영 미래(未來)공업의 수수께끼

## 洗心錄

- 중용의 아름다움

## □ 국제 원유 가격 하락세 지속

- 국제원유 가격은 달러화 강세, 수요 감소, 원유 재고량 증가 등으로 7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10월 22일에 배럴당 59.81달러로 이전 고점인 140.22달러(7월 15일)보다 57.3%, 서부 텍사스산(WTI) 원유는 22일 65.59달러로 이전 고점인 145.49달러(7월 14일)보다 54.9% 하락함
  -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강세는 원유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등은 원유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원유 가격의 급락으로 위기감을 OPEC은 24일에 열리는 긴급회의에서 석유감산 조치를 통해 가격 하락세의 반등을 바라고 있음

## □ 국내 총액대출한도 상향 조정

- 한국은행(10월 23일)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비추어 총액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경기 둔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한도를 증액함
  - 2008년 4/4분기 중 총액대출한도를 9조 원으로 2조 5,000억 원 증액하고,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는 4조 원으로 증액
  - 금융기관별한도 지원대상자금(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만, 증액되는 금융기관별한도 2조 5,000억 원 중 1조 5,000억 원은 기존 지원대상자금 취급실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배정, 나머지 1조 원은 긴급한 부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실적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 배정

□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가시화

- 한국은행(10월 24일)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는 데 그침으로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의 전이가 가시화됨
  -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을 인한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수와 외수의 동반침체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9% 상승함으로써 2/4분기의 4.8%에 비해 0.9%p나 감소
  - 국내총생산은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부분의 저조한 실적은 실질 국내총생산의 실적 저하로 이어짐
  
-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증가세 둔화, 서비스업의 성장률도 하락
  - 제조업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의 부진으로 3/4분기 전년동기대비 6.4%(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쳐 2/4분기 8.5%에 비해 둔화
  - 건설업은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4%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3/4분기에 -0.3% 성장을 기록
  - 서비스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감소, 금융보험업의 성장률 둔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저조한 실적으로 3/4분기에 2.1%로 2/4분기의 3.3%보다 1.2%p 감소
  
- 지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 부진, 재화수출도 전기대비 감소로 전환
  - 민간소비는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 소비지출도 부진하여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1%(전기대비 -0.2%)로 2/4분기의 2.3%에 비해 1.2%p 하락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전기의 낮은 수준에 대한 기저효과로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9%(전기대비 -1.0%) 상승
  - 재화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이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8.1% 증가(전기대비 1.8% 감소), 재화수입도 원유 및 천연가스, 섬유·의복 등의 수입물량이 줄어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전기대비 1.7% 감소)

□ 위기를 극복하는 브레인 확보 전략

- 지속적인 성장과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요소인 ‘인재’를 발굴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힘을 쏟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핵심인재의 확보와 유지 운영에 일찍이 역량을 쏟아 왔음
- 글로벌 기업의 브레인 확보 전략

<글로벌 기업의 브레인 확보 전략>

기 업	사 례
P&G	- 인턴십 사원도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중요한 프로젝트 수행 - 신입사원에게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조기책임제’ 실시
마이크로소프트	- 300명으로 구성된 인재발굴단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 (Candidate Generator) 운영 - 중국인재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차이나타운에서 음식 공수
텍사스인스트루먼트	- 템플턴 회장이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 대학들을 방문하여 인재 리크루팅에 나섬
롤스로이스	- 세계 50여 개 국 주요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재 발굴
맥쿼리금융그룹	- 모든 임직원들에게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인텔	- 핵심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7년마다 60~90일까지의 장기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인 ‘휴가은행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교환근무제(TCAP) 병행

자료 : 한국경제 (2008.10.22)

-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우수 인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위기를 타개하는 글로벌 기업의 인사제도를 벤치마킹 및 각 조직에 적합한 인재경영방법을 창조하여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임

## □ 데스크테리어族\*

### ■ 데스크테리어族이란 책상을 집처럼 꾸미는 직장인들을 말함

- 이색적인 아이디어 제품으로 사무실 책상을 꾸미는 게 마치 하나의 취미처럼 트렌드화되면서 ‘데스크테리어’(deskterior)라는 신조어가 등장
- 데스크테리어란 데스크(desk)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일상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사무실로 옮겨오고 책상 주변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꾸미는 활동을 의미

### ■ 이들은 책상 위를 하나씩 꾸며가면서 일의 효율성도 키워가는 재미를 느낀다고 함

- 장식적인 사무용품으로 자동차 모양의 메모꽂이, 3면을 볼 수 있는 큐브액자, 아로마 향초꽂이, 메모를 부착하는 사람 모형의 자석, 1인 허브티 세트, 태양열 전자시계, 식물 모양 인조화분 등 다양함
- 이외에도 미니 생수기, USB 진공청소기, 살 빼주는 다이어트 방석, 안마봉, 캐릭터 손목보호대 등이 있음

## □ 루비族\*\*

### ■ 루비(RUBY)족이란 자신의 인생을 중시하는 중년 여성들을 의미

- 신선함(Refresh), 비범함(Uncommon), 아름다움(Beautiful), 젊음(Young)의 머릿글자를 딴 말로, 30대 마인드를 가진 40~50대 여성, 다시 말해 아줌마 같지 않은 아줌마를 뜻하는 신조어
-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과거의 엄마들과 달리,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엄마가 빨났다’의 장미희처럼 나를 위해 소비하는 중년여성을 말함

### ■ 이들 루비족을 겨냥한 마케팅 열기가 뜨거움

- 경복궁, 덕수궁이나 미술관을 찾는 중년여성이 급증하자, 근처 음식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에 나서고 있음
- 결혼 일정시점이 지난 후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리마인드 웨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여행사에서는 리허니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함

\* 헤럴드경제(2008.10.20) 기사 참조

\*\* 서울경제(2008.10.21)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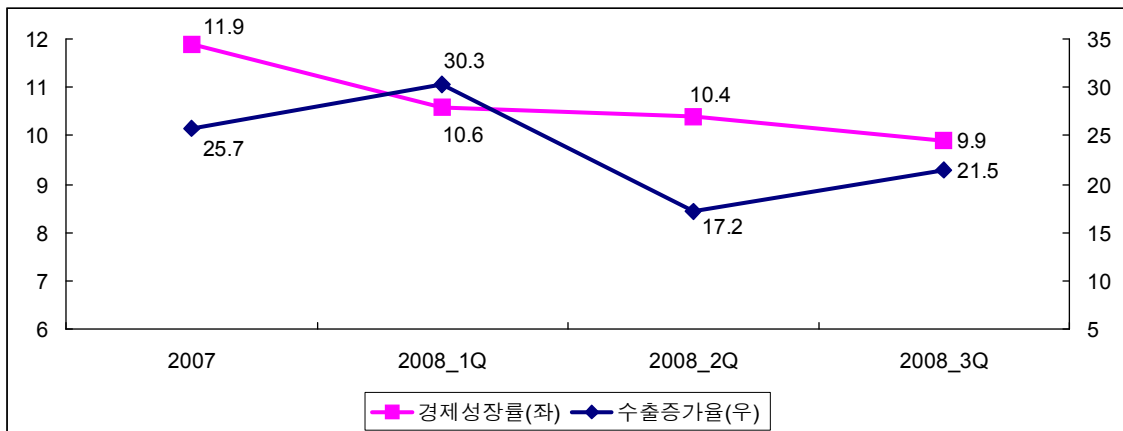
□ 최근 중국 경제와 경기 부양책

■ (현황) 2008년 3/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9.0%를 기록해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 중국의 1~3분기 누적 경제 성장률은 9.9%로 2000년 이후 연간 성장률이 처음으로 한 자리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로 중국의 대외 수출 증가율은 2007년의 26%보다 5%p 이상 하락
- 2007년 초부터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실시한 긴축조치의 효과가 부메랑으로 돌아 온 셈

< 중국 경제 주요 지표 >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 세관

■ (경기부양책) 중국 정부는 국내 경기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고안 중에 있음

- 수출 활성화 :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2007년 말에 인하했던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일제히 원상회복시킴
- 중국은 11월 1일부터 3,800여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

- 이는 중국 전체 수출 품목의 25%에 해당하며, 주로 노동집약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급격한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소비 진작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외수요가 부진한 상태에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기반 확대를 위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정책 발표
  - 최근 개최된 중국공산당 17기 3차 회의에서 농촌지역의 소비여력 증대를 위해 농민의 토지경영권 양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
- 부동산 시장 활성화 :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제시함
  - 부동산 등록세를 종전 3%에서 1%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선불금 한도와 금리를 대폭 인하함
  - 또한 개인의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토지 사용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각급 지방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지하고 나섬
- 증시 활성화 : 중국 정부는 증시 급락을 차단하기 위해 상장 국유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기로 함
  - 정부는 은행, 보험 등 국유 금융기관의 주식 매입을 통해 국유지분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을 지원
- (시사점) 중국 정부의 종합적 대책으로 인해 경착륙 가능성은 낮지만, 비교적 장기에 걸쳐 둔화가 지속될 것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 중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또한 중국 경제의 회복기에 대비해 제품과 인력의 현지화 전략을 차분히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짚돌이’ 경영 미라이(未來)공업의 수수께끼\*

- 1956년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거품경제 붕괴 때도 15%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미라이(未來)공업의 경영방침에 관심이 집중됨
  - 마쓰다전기, 도시바 등의 쟁쟁한 경쟁업체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은 미라이공업의 철저한 비용절감 정책, 즉 ‘짚돌이’ 경영임
- 미라이공업의 ‘짚돌이’ 경영 전략

<미라이공업의 ‘짚돌이’ 경영 사례>

구 분	사 례
1. 철저한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공용 승용차 및 휴대전화 없음</li> <li>- 복사기는 350명당 1대</li> <li>- 건물 복도 불끄기, 사무실 형광등에 풀다운 스위치</li> </ul>
2. 아낀 비용은 ‘직원 만족’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업 금지 (오전 8시 30분 출근 및 오후 4시 30분 퇴근 엄수)</li> <li>- 연일 휴일 143일 (일본 기업 평균 123일)</li> <li>- 임금은 동종 업계 최고 수준</li> <li>- 5년에 한 번씩 전 사원 해외여행</li> <li>- 정년퇴직 70세, 출산휴가 3년</li> </ul>
3. ‘직원 만족’이 기업 성과 높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이후 40여 년간 적자 낸 적 없어</li> <li>- 연평균 15% 영업이익률 달성</li> <li>- 2007년 실적 (매출 261억 엔, 영업이익 38억 엔, 당기 순이익 23억 엔)</li> </ul>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 경기 불황이라는 큰 악재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 속에서 각 기업의 수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임
  - 미라이(未來)공업의 ‘짚돌이’ 경영과 세계 우수기업의 경영전략을 교훈 삼아 기업의 신 성장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8.10.13)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 중용의 아름다움

낙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 “즐겁지만 난잡하지 아니하고,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본래는 “관저 음악은 즐거워도 지나치게 흥청거리지 않고, 슬퍼도 비통할 정도여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의 음악 개념이었다. 관저는 <시경> 국풍의 첫 머리에 나오는 시 이름이다. 공자시대에 관현의 반추에 맞추어, 처음에 ‘관저’, 다음에 ‘갈담’, 끝으로 ‘권이’의 순서로 세 편을 같이 노래하는 것이 관례였다. “낙이불음, 애이불상”은 관저의 멜로디에 대한 평론으로 보인다. 시론이 아니라 음악 평론이라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악지(樂志)에 따르면 신라의 악사인 우륵이 가야금 12곡을 만들고, 이를 계고·만덕·법지라는 제자에게 전수하였다. 이들 제자들은 스승이 만든 음악을 듣고 번차음(繁且淫, 번거롭고 음란하다)하다고 하여 12곡을 5곡으로 줄여 격이 있는 아정(雅正, 고결하고 바름)한 음악으로 만들었다. 스승 우륵은 이러한 제자들의 소식을 접하고 화를 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든 곡을 들어보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면서,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으며 애처로우면서도 슬프지 아니하니 전혀 다른 음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에 음악이라고 하면 방종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되고, 아름답고 깊고, 건전하며 표현이 아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한국의 궁중음악과 정악에 대한 미적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낙이불류 애이불류”의 원문인 “낙이불음 애이불상”에 대해 공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았다. 공자가 보기에 예술적 표현은 도덕적 순결성과 고결함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성적 절제도 수반해야 한다. 적도와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지나친 방종과 범람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용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정담의 표현은 적당한 수준이 있다는 것이다.

“나이 스물에 자유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것이다.  
나이 마흔에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것이다.”

- 위스톤 처칠(1874~1965) : 영국의 정치가 -